



# “부산 위상 높이고 자주적 외교 역량 키우는 큰 기회”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11월 25~26일 해운대 벡스코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11월 27일 누리마루APEC하우스

아세안, ‘전략적 동반자’로

한국의 제2위 교역 대상

55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11월 25~26일 부산 해운대 벡스코에서 열린다. 11월 27일에는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가 누리마루APEC하우스에서 개최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내에서 개최하는 가장 큰 규모 국제행사다.

## 아세안, 연평균 경제성장을 5% 이상

올해는 대한민국과 아세안이 대화 관계를 수립한 지 정확히 30년이 되는 해다. 아세안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의 줄임말로 10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정치·경제적 연합체이다.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타이, 베트남 10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아세안은 2018년 기준, 인구 6억5천만 명(세계 3위), 국내총생산(GDP) 2조5천억 달러의 거대 시장이다. 매년 5% 이상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수준을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 4대 강국만큼 끌어올리는 ‘신남방정책’을 추진 중이다. ‘부산 특별정상회의’는 우리나라와 아세안의 지속 가능한 발전, 우호·협력관계 현황을 확인하고 신남방정책의 추진 동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길을 찾는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내에서 개최하는 가장 큰 규모의 국제행사다.

## 아세안, 짊고 역동적·무한 성장 잠재력

‘짚고 역동적인 지역’, ‘무한한 성장 잠재력’. 아세안을 소개할 때 자주 등장하는 수식어다. 인구 절반 이상 30세 이하, 연평균 경제성장을 5~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동남아 소비증이 2030년 세계 중산층 소비의 59%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한다. 지구촌 여러 나라가 아세안과의 외교와 경제협력에 노력을 기울이는 이유다.

한국과 아세안은 1989년 ‘부분 대화 상대국

관계’ 수립 아래 1991년에는 ‘완전 대화 상대국 관계’로, 이후 지속해서 협력을 강화하면서 2004년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거쳐 2010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한국은 연례적으로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고, 한·아세안 대화를 지속해 아세안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 한국-아세안, 경제적으로 매우 밀접

한국과 아세안은 경제적으로도 매우 밀접하다. 2018년 기준, 한국과 아세안의 교역은 1천 597억 달러(수출 1천1억 달러·수입 596억 달러) 규모로, 우리의 제2위 교역 대상이다. 아세안 10개국은 모두 남북한 동시 수교국으로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에도 중요 파트너다. 한국과 아세안간 개발 경험 공유와 개발 원조 사업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1987년부터 2018년까지 아세안 10개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는 무상원조와 유상원조 각각 20억4천100달러(2018년 누계, 한국 전체 양자 무상 ODA의 20.1%), 28억4천700달러(2018년 누계, 한국 전체 양자 유상 ODA의 39.6%)에 달한다. 한·아세안의 인적교류 강화, 교역·투자 증진, 기술 이전 등 협력 증진을 위한 한·아세안 협력기금도 운용 중이다.

아세안은 남북대화, 북미회담 등 한반도 안보 관련 주요 상황이 대두될 때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촉구하면서 우리 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적극 지지해 왔다. 아세안 주도의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은 북한이 참여하는 유일한 지역협의체이며, 두 차례 북미정상회담 모두 아세안 지역 내에서 열렸다.